

격 려 사

지난 1983년 출범했던 비상종단의 개혁종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당시 비상종단 운영회의의 주역 중 한분이셨던 종회의장 성문스님과 ‘비상종단 개혁종책 연구회’ 이희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해방 이후 위기와 변화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종도들의 개혁열망을 모은 ‘비상기구와 조치’들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던 특별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1983년 비상종단과 1994년 개혁회의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1983년 비상종단의 혁신적인 ‘불교 개혁방안’들은 10년 후 개혁회의의 종단 개혁에 있어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33년 전 비상종단이 추진했던 각종 ‘불교 개혁방안’들은 지금도 우리 종단의 미래개혁을 위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내용들 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뜻 깊은 세미나와 자료집 발간을 통해 재조명하는 노력들은 향후 종단의 백년대계를 이루어 가는데 알찬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성취가 종단과 사부대중 모두에게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0(2016)년 2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